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행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리에트 그레코의 흐느낌이 진득하게 담배연기에 묻어나는 대학가의 카페로 들어섰더니, 스탠드에서 무료하게 맥주잔을 훑고 있던 녀석 하나가 대뜸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한국’이라고 덩덤하게 대답했더니 그는 “오오, 코레, 코레”라고 기성을 연발하면서 맥주를 한잔 사줬단다. 차 한잔을 같이 마시고도 제 몫을 따로 계산하는 노랭이들이 공술을 내줬다니, 아마 오늘의 일진이 ‘대길’인 모양이라면서 나는 그 선심의 영문을 물었다. “야, 너의 나라 축구 최고야, 최고”라면서 그 녀석은 한국선수들이 높이 날아오는 공을 막으려고 앞사람의 어깨에 무등을 타고 사다리 헤딩을 했다는 등, 키피가 찬 공이 상대편의 문전에 떨어졌다는 등 수선스럽게 얘기를 이어 나갔다.

1970년대 초의 일이었으니까 아마도 66년 영국에서 열린 제8회 월드컵 축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았다. 강호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오른 북한은 ‘검은 표범’ 에우제비오가 활약한 포르투갈과의 대전에서 전반 20분 동안 석점을 먼저 빼냈으나 그뒤 다섯점을 거푸 내주어 결국 분루를 삼킨 그 ‘이변’을 지금 내 앞에서 다시 상연하고 있는 참이었다. 실상 월드컵 같은 대경기에서 세 골이나 선취점을 올렸으면 제 편끼리 슬슬 공을 돌리거나, 자주 터치 아웃을 시키거나, 혹은 키피가 오랫동안 공을 주무름으로써 눈치껏 시간을 끄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런 잔재주를 아직 배우지 못했던 탓인지 아니면 어느 ‘교시’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탓인지 아무튼 줄창 죽자사자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공

을 차서 돈을 버는——한때 브라질 선수단의 단장을 맡았던 후앙 살다냐의 말을 빌리자면 ‘공보다 돈에 미친’——프로들에게 하릴없이 당하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선수에게 몸값이 매겨지고 득점에 비례해 보너스가 계산되는 한참 타락한 스포츠 경기에서, 오로지 ‘우직 일변도’로 열과 성을 다해 달려들었던 이 동양의 축구선수들에게 서구의 관중들이 일종의 상쾌한 자극을 맛보았을는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3:0으로 이겼더라면 ‘제법인데’라는 반응과 함께 금방 잊혔을 일이 오히려 3:5로 졌기 때문에 ‘아주 훌륭했어’라는 감탄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왔으리라는 지레짐작이 앞서기도 했다. 여하튼 남한과 북한을 구별하지 않은 그 녀석의 실수를 나무랄 수도 없고, 더구나 벌써 건배까지 하고 난 술잔을 되물릴 수도 없는 처지여서 결과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반국가단체’의 찬양에 편승한 셈이 되고 말았다.

‘빵과 서커스’는 로마의 귀족들이 그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탁월한 재주의 산물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그 서커스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신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간 무려 1,000%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아사자가 속출하지 않는 신기한 사정은, 우선 정부가 빈민들에게 비록 조악한 품질이기는 하나 굶지 않을 만큼 싼 값으로 빵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구가 있다. 축구를 장려하는 지배계급의 속셈과 그것에 열광하는 피지배계급의 사연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직장까지 팽개치고 운동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행동에는 적어도 거기서나마 한시름 잊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에 틀림없다. 결국 축구시합이라는 것이 현실체념을 조장하는 모르핀에 불과하다는 어느 브라질 친구의 한탄에, 문득 “이봐, 펠레가 자선사업에 얼마나 열심인데……”라며 탄축을 걸었더니 그는 정색을 하며 나의 말을 받았다: “아니, 펠레가 제 돈 내서 그런 일 하는 줄 알아? 빈민 구제를 위한 자선 바자 따위에 얼굴 한번 내밀고, 축구공에 서명 몇 개 해놓고는 온통 으스대는 것뿐이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스포츠, 특히 돈과 권력에 지배되는 프로 스포츠가 행사하는 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거창한 논의 따위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다만 여기서는 스포츠가 가르치는 본래의 교훈과 규범들이 사회 전반에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개인적인 희망 사항만을 추가하고 싶을 따름이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나는 서슴없이 '공정성의 준수'를 꼽겠다. 예컨대 축구시합에서 어느 한 편은 15명의 선수를 출전시키고 심판 또한 그들의 반칙을 목인한다면, 그것은 이미 스포츠 행사일 수가 없다. 그러나 실상 직장에서, 사회에서, 제도에서 그와 같은 부당한 처사는 수없이 목격되고 있다. 온갖 법률과 제도는 힘 세고 돈 많은 자를 역성들여 그편에는 두 명의 문지기를 세우도록 허용하고, 그 힘과 돈은 구사대라는 쓰레기 집단까지 동원하여 15명의 선수를 내보내게 하고, 국가권력이란 제복을 입은 심판은 편파적으로 반칙의 호각을 불어제끼고……。 따라서 그런 시혜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적어도 경기의 규칙에서는 차별이 없는, 말하자면 같은 제약 아래서 같은 조건으로 공평하게 승부를 겨루는 운동시합에 갈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선수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야유를 퍼붓고 심판의 판정이 정직하지 않을 때는 방식을 집어던지는 '항거의 쾌감'을 맛볼 수 있기에, 비싼 돈을 내가며 경기장을 찾고 밤잠을 설치가며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이리라.

대단히 민망한 고백이지만 나는 이번 월드컵 축구에서 단 하나의 경기도 시청하지 못한 구제불능의 비문화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 지역 예선의 편성에서부터 경기의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대회조직의 구석 구석에 '백인우월주의'의 편견과 오만이 배어 있다는 점도 그 '비문화'를 강요한 핑계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나의 뇌리에도 74년 서독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회의 결승경기만은 석상처럼 의연하게 남아 있다. 월드컵 시합이야 언제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술하게 뿌려놓게 마련이지만, 그때에도 함부르크 주립 오페라단의 테너 가수가 경기 관전을 이유로 출연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이디』의 공연을 연기해야 했고, 뮌헨에서는 '거리의 여인'들이 축구시합을 함께 시청할 고객(?)들을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감미로운 신문 광고를 내는 등 부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전반 개시 1분 만에 어이없이 패널티 키큰으로 한 점을 잃은 '독일병정'들은 프란츠 베켄바우어의 노련한 지휘 아래, 마치 순록이 설원을 누비는 듯한 요한 크루이프의 네델란드 사단으로부터 25분 만에 역시 페널티 키큰으로 한점을 만회했고, 이어 전반전 종료 직전에 척후 돌격조의 게르트 뮐러에 의해 다시 한 점을 보탬으로써 대세를 가르고, 마침내 '쉴 리메' 컵의 영구 보관 이후 새로 만든 피파(FIFA) 컵을 맨 먼저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월드컵 결승전과 같은 중대한 시합에서 초장부터 패널티 키큰의 선언으로 경기의 흐름을 끊고 선수들을 경직시킨 행위가 과연 옳으냐는 시비가 일었고, 또한 나처럼 경기 규칙에 철저히 무식한 사람의 눈에도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중에 그 판정은 아주 공정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래, 바로 이 점이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수학방정식을 푸는 일이 아닌 다음에야 의당 거기에는 흥분과 정열이 따르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 '정연한 논리'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흔히 대국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1963년 1월, 다음해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단일 선수단의 구성이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쪽 대표가 로잔에서 대좌했었다. 국가는 아리랑으로 정하고 선수단 선발은 독일의 방식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마침내 국기의 문제에서 걸렸다. 북한은 한반도의 지도 위에 오륜 마크를 넣거나 아니면 남북의 기장(旗章)을 적당히 절충하자는 두 가지 구상을 내놓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오륜 마크 위에 남북 기장을 박고 그 아래에 '코리아'라는 영문표기를 달자는 제안으로 중재했다. 그러자 손기정 대표가 일어나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서 우승한 그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분해서 울었느냐. 그때 우리 가슴 속에 새기던 국기가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국기는 태극기라야 한다" (『한국일보』 1980년 6월 10일자)라는 주장을 폈다. 결국 여기서 회담은, 아니 분단된 민족의 비원이 또 한번 무산되고 말았다. 물론 나는 한

원로 체육인의 충정을 포폄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으며, 더욱이 그것이 그분 자신의 진의인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스포츠 회담이 결코 스포츠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경기의 규칙에 못지않는 ‘공정한 논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고집이 월드컵의 열기 속에 어느 ‘비문 화인’이 씩씩하게 느끼는 감상의 한 도막이다.

『한겨레신문』 1990년 7월 10일자

꿀불건 단상

이름깨나 알려진 서구의 도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가장 환영하는 사람이 찻집이나 식당의 종업원이라면 다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것은 사실이다. 홍차 한 잔을 시키면서도 우유를 타라느니 레몬 조각을 띄우라느니 그 주문이 각인각색이고, 일껏 날라온 찻잔의 냄새만 맡고도 시다느니 뚝다느니 하는 따위의 불평이 각양각색인 서양인들의 까다로운 구미를 맞추기에 질력이 난 접객업소의 고용원에게, 향도의 “커피”라는 선창 한마디면 관광버스에서 내린 일행 모두가 일제히 “하이”라고 응답하는 그들이, 그래서 커피 50잔을 한목에 안겨버릴 수 있는 그 일본인들이 어찌 아니 반갑고 어찌 아니 고맙겠는가?

실제로 깃발을——때때로 일장기도 등장한다——앞세우고 줄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일본 여행단을 어찌다 마주치게 되면 그들이 관광을 하는지 관광을 당하는지 분간이 안 되어 내심 민망하게 느낀 경우가 없지 않다. ‘일본식 영어’에 숙달된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에서조차 그들이 ‘비루’를 찾으려면 계산서(bill)를 내밀어야 할지 맥주(beer)를 디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는 야유를 들으면서, 한번은 “당신들도 그러면 일어를 한번 배워보라구”라며 쏘아붙인 적도 있었다. ‘색목인’(色目人) 사회에서 당하는 일본인들의 무색한 처지를 변호하고 나서는 그 심리의 갈등을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는지 잘 모르겠다. 글썽 아무래도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인연 때문일까? 그러면서도 어김없이 ‘예의와 질서’라는 칭송을 자리에 남기고 떠나는 그들에게 나는 애증이 교